내연기관 규제 '제주형 뉴딜' 문제 없나

2030년 시행… 주유·충전·정비소 줄폐업 우려
도민 공감대 형성 내실 있는 정책보완 선행돼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전기차 도입을 위해 2030년을 기점으로 도내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을 사용하는 내연차 판매금지 정책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이에 앞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 전격 도입에 따른 내연기관 정비업소를 비롯한 주유소와 충전소 등 관련 업계의 줄 폐업도 예상되면서 내실 있는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도의회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제주형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해 2025년까지 6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4000개 창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비롯해 전기차 37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비등하다. 도 전역에 대한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주유소 및 충전소는 물론 정비소의 대부분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 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100% 전환 시에는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주유소 193곳 가운데 180곳이 폐업하고, LPG 충전소는 37곳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종합정비소는 92곳에서 21곳으로 줄고, 전문정비소는 기존 388곳 모두 폐업 길에 들어선다.

이에 따른 연관 산업 업체 1곳당 피해 규모는 주유소 23억원, LPG 충전소 21억원, 종합정비소 6억9000만원, 전문정비소 1억2000만원 등이다.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A씨(48·제주시 삼도동)는 "전기차 보급으로 아직까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기존의 정비업소는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차량 보급도 좋지만 기술인력 재교육이나 전기차 관련 사업 변경 지원 등의 정책 보완은 물론 정책 시행에 앞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행정 차원의 기술인력 확충, 관련 산업 전환 및 육성 지원, 정비업체 총량제 운영, 각종 세금 지원 등이 요구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 334건 선정

제주도, 예산 200억원 배정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참여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 총 334건·200억이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년도 사업 확정을 위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를 거쳐 제안을 받은 사업에 대해 2차례의 분과 회의와 위원회 심사,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대상이 읍면동에 한정된 지역사업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행정시 조정협의회를 거쳐 읍·면은 4억원, 동은 2억원 범위 내에서 총 241건·110억원이 배정됐다.

주민 파급 효과가 큰 참여 사업인 경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행정시 조정협의회,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3단계 심의 과정을 거쳤다.

참여 사업 선정 시에는 올해 처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이는 행정시 구분 없이 온라인 도민투표 점수(30%)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점수(70%)를 합산 결과에 따라 총 93건·90억원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태윤기자

성산포 활어위판장 오늘 개장

어업인 숙원 사업… 2년 만에

서귀포시 성산읍 어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활어위판장이 문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포 어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성산포항 활어위판장 건립 사업이 2년 여 간의 공사를 끝으로 15일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성산포항 활어위판장 건립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됐으며, 총 사업비 125억원(국비 40억원, 도비 30억원, 자부담 55억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917㎡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활어위판장, 활·선어 판매장, 회센터(식당), 전망대, 전시장(수산물 가공품 등), 관람로(수산물 위판 현장) 등이다.

제주도는 성산포항 활어위판장 개장을 통해 갓 잡은 신선한 활어를 판매할 수 있어 도민들은 품질 좋은 활어를 구입할 수 있고, 판매하는 어업인은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획량이 많을 경우 수협의 수매기능을 활용한 안정적 어업활동 유지를 비롯해 방문객들이 싱싱한 활어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관광어시장형 활어회센터로 조성됨에 따라 주변 관광지(성산일출봉, 우도 등)와 연계한 어촌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참조기 작업 한창 14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참조기를 그물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무·당근 제주 생산 35% 넘는데… 농약등록시험에선 소외된 제주

위성곤 의원 "보완대책 필요"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무, 당근, 참다래 등 농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시험이 대부분 육지에서 진행돼 제주가 농약 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PLS)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진행된 후작물 잔류성시험은 무는 전남 담양, 충남 논산에서 20건, 당근은 전남 곡성과 충남 논산에서 12건 진행됐지만 제주에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2018년, 2019년 제주에서 진행된 약효약해시험의 경우 무는 197건 중 11건(5.6%), 당근은 54건 중 7건(13%), 양배추는 96건 중 8건(8.3%), 메밀은 1건 중 0건(0%), 참다래는 37건 중 5건(13.5%, 2019년 0건)에 불과했다. 작물잔류성시험도 무는 208건 중 1건, 당근은 83건 중 0건, 양배추는 63건 중 0건, 참다래는 33건 중 6건(2019년 0건)만이 제주에서 이뤄졌다.

농촌진흥청 고시에서는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상 '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으로 '지역 또는 성질이 다른 토양 2개소 이상 선정해 실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화산회토로 이뤄진 성질이 다른 토양을 갖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다수인 제주에는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생산량 가운데 무는 35.7%, 당근 38.2%, 양배추 25.7%, 메밀 36%, 참다래 40% 이상을 제주가 차지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농약등록시험 시 제주의 토양과 환경에서 시험이 이뤄져 이를 근거로 제주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한라산 가을 단풍, 집에서 즐기세요"

드론 활용한 촬영 영상
홈페이지·SNS에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한라산 풍경 영상을 홈페이지와 온라인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는 10월부터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한라산에 많은 탐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탐방객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 소속 한라산국립공원은 한라산 단풍 풍경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을 홈페이지(http://www.jeju.go.kr/hallasan)와 SNS를 통해 제공 중이다. 아울러 한라산 탐방객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탐방로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배너 설치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피소와 정상 주변에서 탐방객 간의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또한,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1일 2회에서 4회로 방역을 강화하고 탐방안내소와 산악박물관에서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입장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탐방객이 몰리는 가을철에는 가급적 집에서 단풍을 감상해주길 바란다"며 "반면, 사진촬영을 위해 무단 입산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임신육아교실 온라인으로

서귀포보건소 10~11월 운영

서귀포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임신육아교실을 비대면 온라인교육 방식으로 전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임신육아교실은 10~11월 두 달간 월 5회 운영한다. 지난 7일에는 서귀포의료원 산부인과 이재영 과장을 초빙해 '엄마, 나 건강히 잘 있어요'를 주제로 임산부 및 태아 건강관리 교육을, 8일에는 모유수유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모유수유교실을 진행했다. 추후에는 신생아 관리, 영유아 영양교육, 부모교육, 출산용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일정 및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지한다. 온라인 임신·육아교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연락하면 된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일도 성환아파트 도장 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일도 성환 아파트**
2) 소 재 지 : **제주시 태성로 23**
3) 단지규모 : 4개동 19라인 190세대(노인정 포함) 외 부대시설
4) 건축면적 : 15,892.31㎡(부속건물 포함)

2. 공사범위
1) 4개동 및 부속건물 전체 균열 보수 및 내·외부 재도장
2) 지상주차선 및 세대별 주차라인(소방차 전용도로 표시 포함)
3) 각종 라인 현관 유리창호 방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방문 실사시 제시

3. 입찰 종류 및 선정방법
일반 경쟁입찰 적격 심사제

4. 참가자격
1) 제주지역에 소재한 업체
2) 최근 3년간 100세대 이상 공사 실적에 3천만원 이상인 업체

5.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해당 전문건설업(도장, 미장방수) 면허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청 및 지방세 완납 확인서 1부
5) 관할세무서 최근 부가세 공급가액 및 납부실적증명서 1부
6) 공사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 밀봉분리 제출) 1부
7)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 현금 또는 공제증권)
8) 사업제안서 1부
9) 공사시방서(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정표 첨부) 1부
10) 실적 증명서 1부

6. 현장설명회 및 서류 접수기간
1) 입찰 희망하는 업체는 개별로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실사 하여야 함
2) 입찰 신청 마감일 : 2020년 10월 23일 17:00시까지 일도성환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찰설명회 : 2020년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 업체선정방법
1) 당 아파트 방문 설명 및 실사를 마친 업체 중에서 제안서 및 견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제출 서류 평가 점수 최다 투표업체) 선정후 개별통보함
2) 서류심사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각서 제출)

8. 기 타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2) 현장 실측 및 시방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공한 자료와 관계없이 입찰업체에 있음
3) 낙찰자가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4) 낙찰자는 낙찰금액 10%의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일까지 제출 하여야 함
5) 공사 하도급 금지 계약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사를 위임할 경우 계약을 파기함
6) 입찰가격 산출방법 기준은 외부균열보수와 재도장 공사를 분리하여 산출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도성환아파트 관리사무소 (☎ 758-5238)로 문의 바랍니다.**

2020. 10.

일도성환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홍 영 재

金海金氏 三賢派 冀孫公 濟州 宗親會
墓祭 奉行 및 定期總會 案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도 종친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도 입도조 묘제 봉행 및 정기총회**를 지난 9월 26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금년에 한해 다음과 같이 임원들만 모여 간단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종친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20년 10월 18일(음 9/2)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김해김씨 삼현파 문민공계 기손 후예 묘원** (제주시 해안동 587-3번지)
■ 참석대상 : **종친회 임원**
■ 제1부: **묘제봉행**
■ 제2부: **정기총회 (심의 안건)**
· 2019년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 기타사항 등

■ 제 관 :
· **초헌관**(여강문중) **현직회장 김정돈**(입도 12세손)
· **아헌관**(여해문중) **전직회장 김이종**(입도 13세손)
· **종헌관**(여택문중) **현부회장 김선돈**(입도 13세손)
■ **축 관** : (여택문중) **이 사 김석효**(입도 13세손)
■ **진 행** : **재무이사 김호영**(입도 15세손)

※ 연락처: 회 장 **김정돈** 010-8662-4230
총무이사 **김우경** 010-2671-4900, 재무이사 **김호영** 010-8714-9525

※ 코로나 19 방역수칙 안내 ⇒ 마스크 필히 착용, 거리두기 실천, 감기,기침,발열 환자 참석 불가

김해김씨 삼현파 기손공 제주 종친회장 김 정 돈